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중국 물류 활동 호전세 보여



물류정책·산업동향

1. 미국, 항만 내 선박 기름 유출사고 방지대책 마련 필요
2. 일 선사 MOL, 물류부문 비즈니스 확장
3. 미국 팍스콘(Foxconn), '21년 초 자율주행 트럭 운행 계획
4. 중-EU(난창-모스크바) 국제직행화물열차 처녀운행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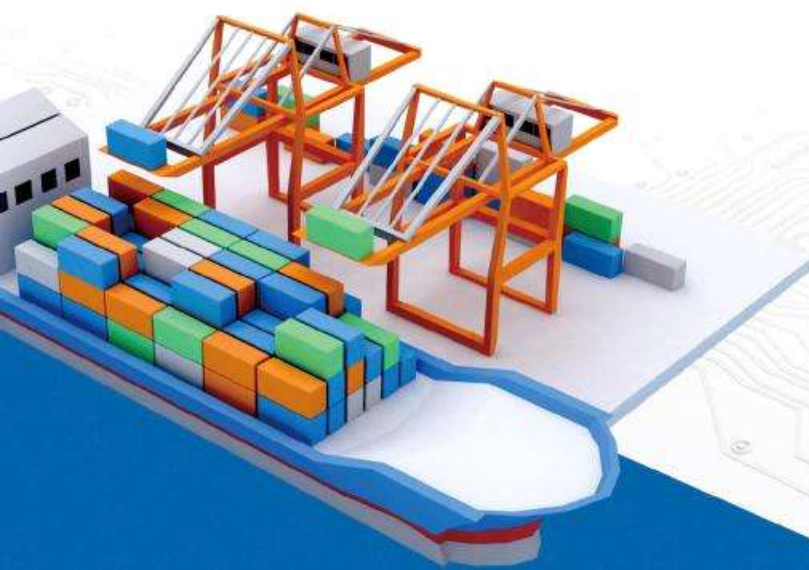
행사안내

1. 제8차 한-러 극동포럼 개최

명사 스피치

“포워더에 시스템을 공급하는 중소 IT기업들을 살펴본다면 정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시스템의 차이, 서비스의 차이가 고객이 느낄 정도로 크지 않다는 의미다. 또한 고객의 특성과 시스템 공급자의 특성이 맞물려서 공급자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국내 포워더 숫자도 최근 정체 내지 줄어드는 추세로 시장의 변화가 거의 없어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창출해야하는 시점이다.”

김성웅 포워더넷 대표이사
(2018. 4. 27. / 코리아슈핑가제트 인터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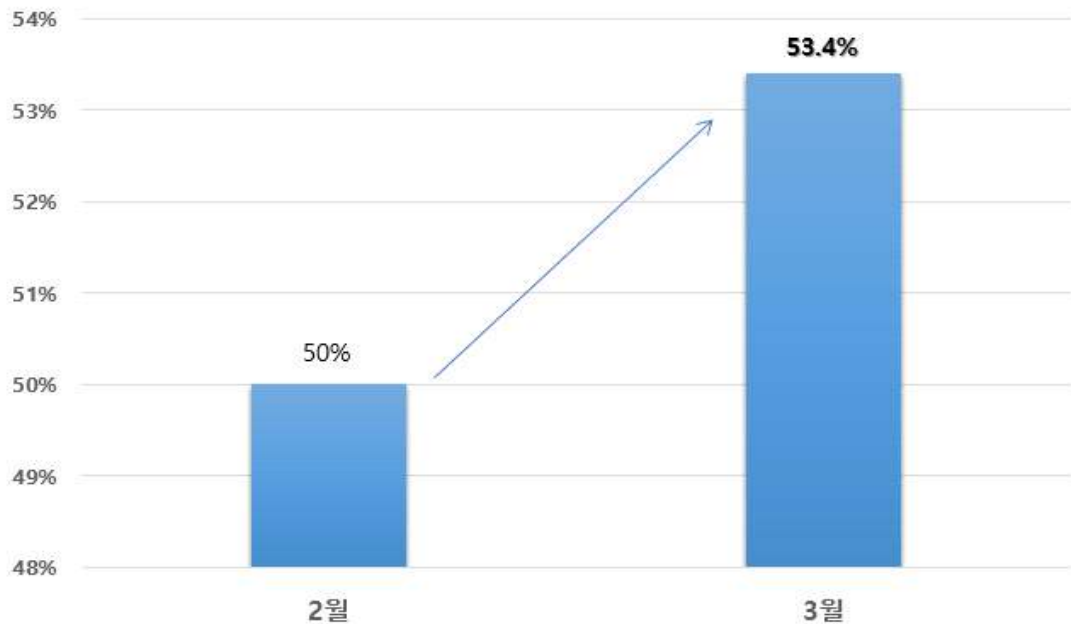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중국 물류 활동 호전세 보여

2018년 2~3월 중국의 LPI 현황



자료 : <http://www.xinhuanet.com>

- 중국 경기가 호전세를 보임에 따라 자국의 3월 물류 활동 역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에 따르면 중국의 3월 물류성과지수(LPI)는 53.4%를 기록함
 - 이는 전월 50%에서 상승한 수치로서 3개월간 지속된 하락세 끝에 처음으로 증가했음
 - 50% 이상의 수치는 물류 서비스 확장을 의미하며, 그 이하는 수축을 의미함
- NDRC는 중국 물류 부문의 발전이 안정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자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중국의 2017년 GDP는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http://www.xinhuanet.com>, 2018.4.9.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미국, 항만 내 선박 기름 유출사고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최근 미동부 지역 뉴저지 주 베이온항에서 선박연료유가 유출되는 사고 발생
 -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베이온항 APM터미널에서 급유(빙커링) 중인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함
 - 해안경비대 해양 검사관은 사고 경위 및 피해 범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고, 국립해양대기 관리 당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기름 유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궤도 모델을 제공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 중
 - 또한 당국은 현재 유출 규모와 자세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앞서 미서부 지역 로스엔젤레스시는 지난 2016년 로스엔젤레스항에서 발생한 자동차 운반선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을 최근 제기
 -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은 선주 Istra Maritime Ltd, 선박관리사 Stanco Ship Management Co., 용선계약사 Mitsui Osk Lines를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본 소송은 캘리포니아주의 Fish and Game Code에 따라 민사 처벌이 가능하며, 피고는 향후 주 보안법 관련 항만 내 활동에 대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사고 처리반에 따르면 선박에서 유출된 약 265배럴의 기름이 San Pedro Bay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지역 어류 및 야생동물의 피해는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사고 원인은 급유 중 선박 내부의 파이프 훼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고 사고 처리를 위해 23일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짐
- 이 같은 일로 인해 미국은 항만 내 선박 급유 시 안전사고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미 해안경비대 사고 처리반(좌)과 LA항 기름유출 사고선박(우)



자료 : World Maritime News

■ 참고자료 : worldmaritimenews.com, 2018.04.25., 2018.04.26.

박주동 전문연구원

051-797-4660, jdpark@kmi.re.kr



일 선사 MOL, 물류부문 비즈니스 확장

- 일본의 컨테이너선사인 MOL은 자회사인 'MOL Worldwide Logistics'라는 통합 브랜드를 중심으로 무선박운송사업¹⁾(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을 확장한다고 발표함
 - MOL은 4월 1일자로 마이클 고(Michael Goh)를 상품운송 사업부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였으며 그 산하에 MOL Logistics(MLG)와 MOL Consolidation Service LTD(MCS)를 구성하여 최적의 협력 모드를 구축함
 - 또한 오는 2018년 7월에는 그룹 전체의 무선박운송사업(NVOCC) 업무에 대한 새로운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콩에 법인을 신설할 예정이며 해당 홍콩 법인의 명칭은 'MOL Worldwide Logistics' 임
- MOL은 서비스 시장에서 운송 당국으로부터 모든 면허 확보가 완료되면 MOL Worldwide Logistics가 마케팅, 조달, 네트워크 운영 및 글로벌 계정 관리의 중심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MOL Worldwide Logistics는 MOL 선박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포워딩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하부터 목적지까지 모든 물류 프로세스를 관리할 것임
 - 또한 단순한 데이터 입력 작업을 간소화하는 대신 정확도 향상 및 노동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s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임
 - 더불어 컨테이너에 GPS 장치를 활용하여 모바일 실시간 화물 추적도 구현해 나갈 것임
- MOL 그룹은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에도 물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 Port Technology, MOL Expands Logistics Arm, 2018.4.26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1)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선사와 선박을 이용해 전체적인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미국 팍스콘(Foxconn), '21년 초 자율주행 트럭 운행 계획

- 팍스콘은 미국 위스콘신주와 협력하여 고속도로 '인터스테이트94(I-94)'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트럭을 구현할 계획임
 - 자율주행트럭은 팍스콘의 제품을 생산하는 LCD 스크린 제조공장과 공항 사이를 운행할 예정임
 - 또한, 도로의 통신망과 연결하여 통행속도 등의 정보를 수신하고 무선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것임
- 팍스콘 관계자는 '스마트 고속도로'는 차세대 공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회사의 광범위한 비전의 일부라고 설명함
 - 스마트 고속도로에는 5피트 간격으로 센서가 설치되는 등 건설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임
 - 반면, 트럭은 고속도로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운행하게 되며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 위스콘신 주정부는 I-94의 Four Mile Road와 Highway 142 구간에 광섬유 케이블과 센서 설치를 위한 입찰에 들어감
 - 광섬유 케이블 설치에 트럭과의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자율주행 테스트는 고속도로에 필요한 시설 설치가 끝난 후 실행될 예정임
 - 주정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테스트가 '20년 실행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팍스콘은 자율주행 트럭의 구현이 '21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참고자료 : <https://www.bizjournals.com>, 2018.5.2.

신정훈 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중-EU(난창-모스크바) 국제직행화물열차 처녀운행 성공

- 지난 4월 21일 오전 11시 8분경, 중국 장시성 난창(南昌)에서 출발해 목적지인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연결되는 국제직행화물열차의 처녀운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됨
 - 이번 국제직행화물열차는 난창에서 40ft 컨테이너(FEU) 41개를 적재한 뒤 몽골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진입하는 경로로 총 운송거리는 약 10,000km에 달함
 - 컨테이너에는 1,000만 위안 상당의 의류, 신발, 모자 등 액세서리, 전자제품 등이 적재되어 운송됨
- COSCO의 중-EU 복합운송 프로젝트 책임자에 따르면, 향후 동 열차의 정기 운행이 진행되면 난창에서 모스크바까지 1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함
 - 기존 루트로 난창의 화물이 연안해운으로 상하이항에 도착한 뒤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상운송한 뒤 다시 육상으로 모스크바까지 운송하기까지는 약 55일에서 60일이 소요된다고 밝힘
- 5월 중순에 이 열차가 정식으로 주간 1회로 정기운행이 개시되면 전통적인 해상운송 모델보다 30일 이상을 단축할 수 있음
 - 또한 도로를 이용해 국경을 거쳐 수출되는 것보다 전 구간 40%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난창-모스크바 국제직행화물열차



자료 : automotivelogistics.media.

- 난창-모스크바 국제직행화물열차는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종합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국제직행화물열차 개통은 장시(江西)와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향상시키고 일대일로 전략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난창현(县)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난창통상구에는 복합운송 수출입 노선이 4개, 그중 3개 노선이 국제직행열차 노선으로 구축됨

■ 참고자료 : shippingchina.com, 2018.4.27.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행사안내

〈제8차 한-러 극동포럼 개최〉

- 추진 배경과 목적
 - 제3차 동방경제포럼 및 한러정상회담 합의 사항 실현을 위한 후속 아젠다 발굴
 - 대통령 제안 '9 브릿지' 제안의 분야별 구체화 및 제4차 포럼 대비
 - 한-극동러 지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모색 및 기업간 교류협력 확대, 협력 가능 분야 발굴을 통한 우리 기업의 극동 진출 지원
 - * 극동지역에서 실질협력 가능성이 높은 수산가공, 조선 분야 등을 중점 논의
- 주제 : 한-러 극동지역 실질협력 : 새로운 기회와 도전
- 일시/장소 : 2018.05.16.(수), 08:30~17:30,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
- 공동 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 후원 : (한측)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조선기자재협회
(러측) 극동개발부, 연해주 정부, 극동개발기금, 극동투자수출지원청
- 참석 대상 : (수산·어선건조) 수산, 어선건조, 중고선박, 양식, 수산물 가공 등
(물류·NSR) 물류사업 및 극동러 프로젝트(에너지 포함) 참여 희망 및 관심 기업 등
(현지 투자) 산업단지 개발, 선도개발구역 투자 등
- 참석자 : (한측)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CJ대한통운, 한국통산, (주)세원마르스 등 민간기업
(러측) 극동개발부, 연해주 정부, 극동개발기금, 극동투자수출지원청,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 신청 기한 : 2018.05.11.(금) 까지
- 신청 방법
 - 별첨 신청서를 아래 문의 및 접수처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참고사항: 차량제공, 호텔 예약 대행 및 오만찬 간담회는 주최 및 주관 측에서 지원하며, 숙박 및 항공은 업체 개별부담임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 김엄지 연구원(051-797-4776/umjikim@kmi.re.k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kdong@kmi.re.kr)

● 세부 프로그램

구 분	주요 내용	
08:30~09:00	참가자 등록 및 네트워킹	
개회식	한-러 극동지역 실질협력 : 새로운 기회와 도전 (사회 : 신수용 박사, KMI)	
09:00~09:25	개회사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축사	(러측) 타라첸코 연해주지사
	축사	(한측) 이인용 국회 사무차장
	환영사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09:25~09:55	기조연설	극동 투자 잠재력과 개발 방향 (셰브초프 부총리실 연해주 대표)
	연설	한-러 경제협력 비전과 추진전략 (이승원 북방경제협력위 부단장)
09:55~10:00	사진 촬영	
Session I	극동 개발 : 극동 개발의 새로운 전개와 대응 방안	
10:00~11:30 좌장: 김동주 국토연 원장	주제 발표	1. 러시아 극동개발의 추진 성과와 계획(페투호프 극동투자수출지원청) 2. 극동러 개발 전망과 과제(성원용 교수, 인천대) 3. 선도개발구 및 자유항 해외투자사례와 시사점(티하노프 극동개발공사 사장) 4. 극동지역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한-러협력 방안(이현주 박사, 국토연구원)
	토론	한: 정진규 연구위원(국토연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황진희 본부장(KMI) 러: 스코릭(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입주기업 지원협회 회장), 자오스트롭프스키(과학 아카데미(RAS) 극동분원 선임연구원)
Session II	수산물선건조 : 극동러 수산 현대화와 협력 방안	
11:30~13:00 좌장: 레루힌 극동수산물거래소 사장	주제 발표	1. 극동러 수산가공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과제(마로요프 극동투자수출지원청 극동 대표) 2. 수산가공물류단지 중심의 한러 수산협력 과제(장홍석 실장, KMI) 3. 연해주 양식장 투자 사례와 한러 협력 가능성(나스타프셰프 연해주 수산국장) 4. 어선 건조수리 분야 한국의 참여 방안(김학기 박사, 산업연구원)
	토론	한: 성기석 부장(CJ대한통운), 권기현 부장(한국통산), 엄선희 부연구위원(KMI) 러: 갈리트순(캄차카 어업부 차관), 비사이토프(사우스터미널사 사장)
13:00~14:00	오찬	
Session III	북극항로-물류 : 북극항로와 복합운송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14:00~15:30 좌장: 양창호 KMI 원장	주제 발표	1. 극동러에서의 북극항로 활성화 성과와 과제(오가이 총장,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 2. NSR 연계 비즈니스 모델(조지성 박사, KMI) 3. 극동러 TSR 활용 복합운송 활성화 현황과 계획(러) 4. 극동러 복합운송에서의 화차 문제와 한러간 협력방안(한창윤 세원마르스)
	토론	한: 전명수(블라디보스토크경제대학 객원교수) 러: 바클라노프(태평양지리연구소 부문장), 라린(아태연구센터 소장)
15:30~15:50	coffee break	
Session IV	에너지 : 극동러 지역 한러 석유가스 협력 방안	
15:50~17:20 좌장: 아브라모프 극동연방대 교수	주제 발표	1. 극동러 지역 LNG 공급분야 투자동향(예로힌 언스트&영 극동대표) 2.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전망과 한러협력 가능성(김효선 북방경제협력위 위원)
	토론	한: 이상준 교수(국민대), 강태호 소장(한겨레평화연구소장) 러: 사할린 주정부, 연해주 에너지부
17:20~17:30	마무리(이성우 KMI 본부장)	

* 세미나 주제 및 발표기관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세션별로 발표이후 양 국가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